



제목	콘스탄티노플의 라틴제국 지배 시기 동방 정교회와 카톨릭 교회 간 관계에 대한 일고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역사학회 (역사학보 제216집)
발행일	2012. 12.
저자	최자영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337-371
ISBN 또는 ISSN	1225-1615

내용 요약

이 논문은 1204년 4차 십자군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이후 1261년까지 비잔틴지역에 세워진 프랑크인 군주와 라틴 교회의 권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고찰하고, 그것의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 프랑크인과 라틴인이 점령한 곳에서는 정교회 비잔틴인 고위성직자들이 가톨릭교회 라틴인에 의해 대대적으로 축출되고 순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고위 성직과 대부분의 하급 성직은 정교회 비잔틴인들이 그대로 유지했고 민중 전통이 이들과 함께 했다고 한다. 로마 교황청이 동서 교회 통합을 위해 교회세력을 확장하려고 할 때, 라틴 교회는 물론 비잔틴 정교회 성직자들도 이것을 지지하고 라틴 교회의 권위를 수용하기도 했다. 이때 교황이 의도한 통합은 종교적 이념보다는 법제적 의미가 강했는데, 이는 교황이 세속세계는 물론 동방 기독교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이었다. 프랑크인과 라틴인 사이에는 세속군주들끼리, 또는 라틴교회와 세속 군주들 간에, 로마교황청과 발칸반도 현지 라틴인 성직자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었다. 또한 프랑크인 군주와 라틴인 성직자들이 부제주로서 봉건적 수세권만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라틴인이 부제주주 혹은 세속군주나 고위 성직에 한정된 것과 다르게, 정교회 비잔틴인은 하급사제로서 민중과 호흡하며 사회 저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연구결과, 다음 몇 가지를 밝혀낸다. 그 시기 비잔틴인들은 근대적 개념의 민족의식과는 달리 고전적 자유의 전통을 중시했으며, 서방인들은 비잔틴 영토 침략을 통해 단순한 경제적 수탈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변화를 수반했다고 한다.